

울릉도 고지도 유형 연구

김기혁(부산대학교)

1.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울릉도를 상세하게 그린 고지도를 통해 조선시대에 생산된 울릉도의 지리적인 지식이 지도를 통해 가공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고지도의 변화 과정과 유형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자료

전국 각 기관에 소장된 울릉도 고지도 30여종

2. 연구 내용

울릉도 고지도의 유형은 회화식 군현지도와 방안식 지도로 분류된다. 회화식 지도는 1697년부터 시작된 울릉도 수토로 얻어진 지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수토 지도로 가장 초기의 지도는 1711년 박석창의 「울릉도도형」이다. 지명이 중복 한 곳만이 기재되고, 나머지 내용은 주기이다. 이후 매 2-3년 주기로 실시된 수토로 얻어진 정보는 가공되어 군현지도책에 낱장으로 삽입되었다. 대표적인 지도가 「해동지도」의 울릉도 지도이다. 이후 편찬된 「광여도」, 「여지도」 등의 군현지도책에서는 「해동지도」의 지도 내용이 부분적으로 수정되면서 수록된다. 이들 지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복을 향하는 시점(視點)을 두고 폐화식 구도로 그려져 있는 점이다. 이들 지도에서 16곳의 지명이 수록되는 등 「울릉도도형」(1711)에 비해 지명이 구체적이나 많은 내용의 주기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회화식 군현지도와는 별도로 수토 지도는 계속 제작되었다.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수토관은 울릉도 수토(1697-1895)에 대한 보고로 지도를 올리게 되어 있었다. 현재 확인된 수토지도로 앞서 언급한 박석창의 「울릉도도형」,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울릉도도형」, 만은 이규원이 1882년 제작한 「울릉도외도」, 「울릉도내도」 등 4종과 소장처 미상의 「울릉도도」와 목록으로만 소개된 지도가 있다. 이들 지도의 특징은 울릉도가 실경으로 매우 상세하게 표현되며, 특히 해안의 정보가 매우 구체적이다. 수록되는 지명은 수토기에서 나타나는 곳과 대체로 일치한다. 다른 지도에 비해 대축척으로 그려져 있으나 위치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방안식 지도는 방안식 군현지도책에 삽입된 지도와 대축척 전국전도에 그려진 울릉도 지도가 해당된

표 1. 울릉도 고지도 목록 및 유형

유형	고지도		연대	소장처	비고		
회화식 지도	군현 지도책	「海東地圖」	18세기중엽	규장각	지도책		
		「輿地圖」	18세기중엽	규장각	"		
		「輿地圖」	18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		
		「輿地便覽」	19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MF*	"		
		「地乘」	19세기 초	규장각	"		
		「廣輿圖」	19세기 초	규장각	"		
	수도 지도	「鬱陵島圖形」(朴錫昌)	1711년	규장각	날장지도		
		「鬱陵島外圖」(李奎遠)	1882년	규장각	날장지도		
		「鬱陵島內圖」(李奎遠)	1882년	규장각	"		
		「鬱陵島圖形」	未詳	국립중앙도서관	"		
		「鬱陵島圖」	未詳	不明	"		
	「鬱陵島圖」	未詳	간송미술관(목록집) ¹⁾	"			
방안식 지도	군현 지도책	「朝鮮地圖」	18세기	규장각	지도책		
		「地圖」	18세기	장서각	"		
		「八道地圖」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		
		「輿地圖」	18세기	고려대도서관	"		
		「地圖」	18세기 초	고려대도서관	"		
		「海東輿地圖」	18세기	국립중앙도서관	"		
	대축척 전국 전도	靑 邱 圖	「東輿圖志」	-	대영박물관 ²⁾	지리지	
			「청구요람」	1834년	규장각	2책(乾坤)	
			「청구도」	1834년	규장각	4책(1-4)	
			「청구도」	1834년	국립중앙도서관	2책(乾坤)	
			「청구경위도」	1834년	국립중앙도서관	2책(上下)	
			「청구도」	1834년	장서각	2책(乾坤)	
			「청구도」	1834년	고려대도서관	2책(奇遇)	
			「청구도」	1834년	영남대도서관	2책(上下)	
			「여지도」	1834년	영남대도서관	2책(乾坤)*	
			「청구도」	1834년	승실대박물관	2책(奇遇)	
			大東 輿地圖 筆寫本	「東輿」	19세기 초	국립중앙박물관 ³⁾	14첩
				「朝鮮圖」	19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26첩
				「大東輿地圖」	19세기 초	국립중앙도서관	18첩
				「東輿圖」	19세기	규장각 외 2곳	22첩
「大東輿地圖」(木版本)	1861년	규장각 외 20여곳		22첩			
「大東輿地圖」修正木版本	1864년	규장각		22첩			
「大東輿地圖」模寫筆寫本	-	규장각 외		22첩			
「大東輿地圖」修正筆寫本	-	영남대박물관		22첩			
大東 輿地圖 木版本	「大東方輿全圖」	-	규장각	22첩			

1) 간송문고한적목록(1967); 2) 양보경교수(성신여대) 협조; 3) 오상학교수(제주대) 협조

다. 지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울릉도가 20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으며 우산도가 동쪽 40리에 그려져 있다. 앞의 회화식 군현지도책에서 각 지도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르나, 방안식 군현지도책에서는 「해동 여지도」를 제외하고 정확히 묘사된 지도들이다. 방안을 사용하고 회화식 지도에 비해 울릉도 해안이 실제 모습과 유사하여 지도 제작 기술의 발달을 엿볼 수 있으나 수록된 지명수는 적다. 회화식 군현지도책에서 「所謂于山島」로 기재하던 우산도가 「于山島」로 표현되어 이 섬에 대한 지리적인 지식이 구체화되었

음을 보여준다.

대축척 전국지도의 울릉도 묘사에서는 방안식 군현지도책의 울릉도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청구도』에서는 각 기관의 소장본마다 산맥의 묘사 방법 및 주기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수록 지명 및 하천 묘사는 방안식 군현지도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청구도』 내에서의 이와 같은 차이는 각 본들이 동일한 지리정보를 바탕으로 지도가 그려졌으며,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산맥 표현 방법, 삽입 주기, 혹은 새로 얻어진 지리 정보 등이 삽입되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여도지』의 부도와 절첩 분첩식 필사본으로 제작된 『동여』(국립중앙박물관; 14첩), 『조선도』(일본 오사카부립도서관; 26첩), 『대동여지도』(국립중앙도서관; 18첩)의 울릉도 지도 내용도 방안식 군현지도책의 내용과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도, 산맥, 하천 등의 묘사는 동일하다.

1861년 제작된 『대동여지도』 목판본과 『동여도』(규장각)에서는 수록 지명, 산지 및 하천 묘사 방법에 있어서 이전의 지도와 비교하여 볼 때 형태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유형의 지도에는 『동여도』, 『대동방역전도』 및 『대동여지도』 목판본과 이의 수정본 및 모사본 등이 있다.

이들 지도 내용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분첩 형식에서 22첩으로 동일하다. 수록 지명은 다른 방안식 지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6곳으로 묘사되던 하천의 만입부가 10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쪽에 그려진 섬도 6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동쪽에 묘사되던 '우산도'는 그려지지 않고 있다. 산맥의 표현 방법도 매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도에 비해 연결성이 완벽하다. 한편 『동여도』의 경우 『대동여지도』 목판본에 비해 많은 주기가 기재되어 있다. 이들 주기의 내용은 방안식 군현지도나 『청구도』에 수록된 주기 내용과 동일하다.

3. 결론 및 토의

울릉도 지도는 수토 정책이 실시되면서 상세하게 그려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되는 수토지도와 이를 바탕으로 지리정보가 가공되어 군현지도책에 삽입되는 지도로 구분되며 이들 지도는 표현 양식으로 볼때 회화식 지도로 분류된다.

20리 방안의 방안식 지도의 제작은 주로 이들 회화식 지도의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 형태가 보다 상세히 묘사되었으며, 우산도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방안식 군현지도의 내용이 『청구도』, 『동여』, 『조선도』, 『대동여지도』 필사본 등 대축척 전국지도의 울릉도 내용과 동일한 것은, 방안식 군현지도가 이후 대축척 전국 지도의 울릉도 부분의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대동여지도』 목판본의 유형에 속하는 울릉도 지도는 지명과 주기에서 볼 때 새로운 지리 정보가 유입되었다는 증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작된 군현지도 및 대축척 전국지도의 울릉도 내용과 매우 다르다. 특히 산맥, 하천, 섬 등의 묘사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산맥 표현에서 다른 지도에 비해 형태에서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연결성이 완벽하다. 이는 육지부의 산맥의 묘사방법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산맥 표현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산지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반

영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천수는 매우 증가하며 유로가 직선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동여지도』목판본에서 하천수가 많아지는 것은 지리정보의 양이 많아 저서가 아니라 산지의 모든 계곡에 하천을 일률적으로 그리는 묘사 방법에 기인된다. 이는 다른 육지부의 부분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대동여지도』 목판본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는 지리정보의 위치 오류는 이와 같은 하천 묘사방법에 기인된다는 것이 자주 지적된다.

섬의 묘사에 있어서 5곳에서 3곳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당시 자연지리적인 지식에서 '岬' 과 '島' 의 차이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내륙에 표시되는 공암을 제외하고, 죽암(땀방위), 일선암, 관음도(깍새섬), 죽도, 주도 등 5곳으로 표현되는 것이 정확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1861년 『대동여지도』가 목판본으로 제작되기 전에 이미 방안식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작이 다양한 형태의 필사본으로 적지 않게 시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동여지도』 목판본에서 나타나는 지리 정보의 현저한 차이는 목판본의 초기 기획 단계인 밑그림 제작부터 현재 밝혀지지 않은 다른 측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